

http://dx.doi.org/10.17703/JCCT.2019.5.3.191

JCCT 2019-8-25

접적지역 복무 병사의 적응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Adaptation of Service Personnel in the Entrance Region*

박상혁**, 윤여연***

Sang-Hyuk Park**, Yeo-Yeon Yoon***

요약 우리나라는 정전으로 남북관계가 대치됨에 따라 남북의 MDL(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간의 전쟁이 언제라도 촉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타 국가의 국경과는 달리 남북의 접적지역은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최전방 접적지역이다.

접적지역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지역적 여건상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여 외출, 외박, 면회가 적은 실정이고, 근무 환경은 야밤에 넓은 숲과 적막함이 넘치고 적과 근접하여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불안함과 외로움 그리고 불안함이 과중 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목숨을 내놓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병영생활을 안전하고 충실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 접적지역 복무병사들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어 : 병사, 접적지역, 적응, 군대,

Abstract South Korea is in a dangerous situation where a war between the two Koreas could be triggered at any time based on the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between the two Koreas due to the inter-Korean standoff over the armistice. Also, unlike the borders of other countries, the border between the two Koreas is the front-line area where people can feel the threat of life that could be triggered by war.

Soldiers who work in special areas such as the contact area are not easily accessible due to local conditions, and are less likely to go out, stay out, stay out, or visit, and the working environment is overloaded with vast forests and silence at night, and feel anxious, lonely and insecure because they don't know when any situation will occur near the enemy. Therefore, a great deal of help will be needed to pay attention to soldiers who give up their lives here and perform their national defense duties, and to finish their barracks life safely and faithfully, and support for psychological adaptation of service members in the border areas.

Key words : Soldier, contact area, Adaptation, Military

1. 서 론

최근 우리 군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유롭고 개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소위 '신세대'라고 일컫는 젊은이들의 군

*이 논문은 박상혁의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3) Received: June 02, 2019 / Revised: June 18, 2019

연구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한 논문임 Accepted: July 10, 2019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제1저자)

*Corresponding Author: cocopalm97@hanmail.net

***정회원, 한국저널리스트대학 평생교육원(공동저자)

Dept. of Military science, Wooseok University Univ, Korea

접수일: 2019년 6월 2일, 수정완료일: 2019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10일

입대로 병사관리에 많은 지휘부담을 안고 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나약한 정신력 등 여러 부정적 요소가 경직된 군대문화에 배타적으로 적용하여 군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군대 구성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병사들은 이들 신세대를 중심으로 병역이 충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군 지휘관들은 병력지휘 부담을 안고 있으며, 군대의 상명하복, 계급에 의한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의 군대 문화로 인해 군 복무간 많은 고충을 경험 한다.

이들은 군 복무를 군인으로서의 애국심, 사명감 보다는 병역의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특히 군이라는 계급사회, 외부와의 단절된 환경, 소외감으로 인해 군 복무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세대 병사들은 그들이 몸담아 왔던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아무런 준비나 목표없이 순수히 법에 의한 의무감으로 군 조직체에 소속되므로써, 자발적 군 복무가 아닌 의무감을 지닌 수동적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적지역 복무 병사의 적응도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군 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군대조직 문화에 대한 고찰

오늘날 군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병들은 '신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신세대 병사들은 군대라는 집단조직의 군 생활 적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신세대 병사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군대문화에 대해 선행적으로 파악해할 필요성이 있다.

군대문화를 보면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요인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민주적 요소, 권위주의적 요소, 획일주의와 형식주의가 그 부정적 요인이다. 사고방식의 변화와 개선 등으로 군대 생활속에서 비민주적 요소들이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까지 고압적인 폭언과 얼차레 등의 구시대적 관행이 잔존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비민주적 관행은 직접적으로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한편, 각종 군기문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군의 상의하달식 부대관리, 계급에 의한 경직된 수직관계에서 권위주의가 형성되어 군

대문화의 역기능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의 권위주의적 요소로 말미암아 장병들은 창의적이고 신있는 업무 처리보다는 일방적으로 상급자의 그때그때 지시에 따른 임기응변식의 업무수행은 능동적으로 복무의식이 상실과 우발적인 충돌사고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군대문화란 장병들의 공유하는 가치관, 사고방식, 태도 및 신념 등의 총체로서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현재 군대 문화의 획일성, 폐쇄성과 신세대 병사들의 민주적, 개방적 문화와의 상충으로 군은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내제된 갈등 구조는 문화와의 상충으로 군은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내제된 갈등구조는 군 조직을 이완시키고 군 기강을 문란케하여 전투력 약화는 물론, 사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요소를 해소하여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대문화의 새로운 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1].

2. 신세대 병사의 특징

'신세대'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신세대'란 광고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신생 용어로 미국에서 'X'세대, 프랑스에서는 '데드부줄(불평분만주의자)', 일본에서는 '신인류'로 불리우고 있다. '신세대'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단순히 기성세대와 특히 사고방식에 결부하여 구별하는 낱말에 불과하다. 또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뜻의 미지수 개념이 포함된 예측 불가능한 18세서 25세의 성장세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신세대의 연령구별은 많은 저서나 저자들 나름대로 그 연령층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연령은 만18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대의 구별을 생물학적 연령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대의 규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령이 아니라 신세대들이 기성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는 공통의 역사적 사회적 경험이라 하겠다.

신세대라고 보는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연령 집단이 신세대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기성세대와 가장 잘 구별되게 해준다. 즉, 이 연령집단은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당한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린 혜택 받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세대들의 의식과 가치관, 행동양식은 기성세대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거나 판이하게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3. 접적지역 부대의 개념

접적이란 두 지역의 경계와 맞닿거나 그 맞닿은 경계를 말하고 '접적지역'이란 국가 간에 국경선에 인접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적지역의 일반적인 의미가 적용되는데 있어서는 개념상의 의미나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는 사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북접적지역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인데, 남한은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시설보호지역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접적지역은 우리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일정지역(약20km정도)에 민간인의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을 설치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한 접적지역이라고 하면, 비무장지대(DMZ), 민간인통제구역(CCZ), 접적지역지원법 상 접적지역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법률상 남북접적지역은 한국전쟁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4km, 동서 248km에 걸친 비무장지대(약 907km²)를 의미한다. 본래 비무장지대란 글자 그대로 무력충돌을 공간적으로 통제하는 비무장화 지역 또는 공간적 군축지역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접전하던 접적지역 또는 접경지대 등과 같은 군사전략상 민감한 지역을 의미한다.

4. 접적지역 복무 병사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어 14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곤경, 곤란, 역경, 고통 등을 의미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뜻하는 'stress'라는 용어는 19세기에 그 근원을 두며 물체나 인간에게 작용하는 힘, 압력, 강한 영향력 등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는 외부의 압력과 긴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면 긴장, 흥분, 각성 또는 불안과 같은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스트레스라고 한다. 스트레스란 이처럼 스트레스 인자로 인하여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으로 즉

각적인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의미한다[2].

스트레스는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일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주관적인 인식정도가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진다. 부정적인 발달 신물과 관계되는 개별적인 특성이 포함될 수 있고,만성적인 빈곤, 역경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다 [3]. 따라서 군인의 스트레스 발생 영역은 군대 내부에서의 영역과 군대 외부에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군인은 특히 병사들의 경우 상관의 허락을 얻은 휴가와 외출 이외에는 부대 내에서만 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군대 내부의 요인이 외부의 요인보다는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병사에게 있어 가족과 친구와 같은 군 외부의 자원으로부터의 스트레스도 군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4].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가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적응관리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적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조직적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적응관리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적응관리요인에 따라 적응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개인적 요인에 따라 적응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조직적 요인에 따라 적응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적응관리 요인에 따라 적응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과정의 흐름

접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는 남북의 MDL(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간의 전쟁이 언제라도 촉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관계로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해 병사들의 사기와 적응도는 국방안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접적지역 병사들의 적응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병사들의 개인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조직요인, 적응관리 요인 등을 모두 내포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개인요인, 조직요인, 적응관리요인을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 적응성과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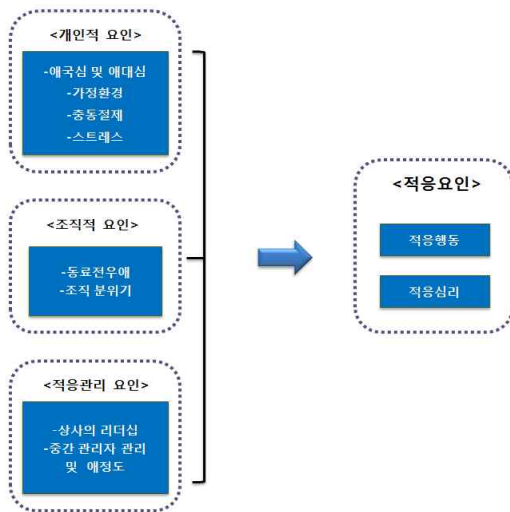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분석 틀
Figure 1. research and analysis framework

IV. 연구결과

1. 적응요인에 미치는 영향

Table 1. Effects on Adaptation Factors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1.038	.514		2.019	.045	
개인	애국심 및 애대심	.266	.118	.211	2.251	.026*
	가정환경	.071	.083	.067	.861	.391
	충동절제	-.275	.082	-.278	-3.343	.001**
	스트레스	.054	.077	.056	.699	.486
조직	동료 전우애	.008	.081	.007	.094	.925
	조직 분위기	.213	.103	.168	2.081	.039*
적용 관리	상사의 리더십	.378	.115	.309	3.289	.001**
	중간 관리자 관리	.196	.107	.165	1.895	.049*
	관리 및 애정도					
$R^2 = .475$		$F = 15.961$		$p = .000***$		

접적지역 복무 병사의 개인, 조직, 적응 관리 요인이 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F의 유의확률 p값이 .000으로 회귀식은 의미가 있었다. 설명력은 47.5%였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적 요인에서는 애국심 및 애대심(B=.211, p<.050, 충동 절제(B=-.278, p<.01), 조직 분위기(B=.168, p<.05)로 나타났으며 적응 관리에서는 상사의 리더십(B=.309, p<.01), 중간 관리자 관리 및 애정도(B=.165, p<.05)로 나타났다. 즉, 애국심 및 애대심이 높고 충동 절제가 잘 되며 조직 분위기가 좋을수록 적응 행동 수준이 높았다. 또한 상사의 리더십과 중간 관리자 관리 및 애정도가 높을수록 적응 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상사의 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적응심리에 미치는 영향

Table 2. Effects of Adaptation Psychology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800	.513		1.560	.121	
개인	애국심 및 애대심	.159	.118	.133	1.348	.180
	가정환경	.137	.083	.136	1.658	.100
	충동절제	-.151	.082	-.161	-1.839	.048*
	스트레스	.019	.077	.020	.240	.811
조직	동료 전우애	.058	.080	.054	.723	.471
	조직 분위기	.006	.102	.005	.055	.957
적용 관리	상사의 리더십	.393	.115	.338	3.429	.001**
	중간 관리자 관리	.118	.106	.105	1.113	.268
	관리 및 애정도					
$R^2 = .423$		$F = 12.927$		$p = .000***$		

접적지역 복무 병사의 개인, 조직, 적응 관리 요인이 적응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F의 유의확률 p값이 .000으로 회귀식은 의미가 있었다. 설명력은 42.3%였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적 요인에서는 충동 절제(B=-.161, p<.05), 적응 관리 중 상사의 리더십(B=.338, p<.01)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 절제가 잘되고 상사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적응 심리 수준이 높았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Duksung Women's University 2009.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적응관리요인에 따라 적응행동을 분석한 결과, 애국심 및 애대심이 높고 충동절제가 잘 되며 조직 분위기가 좋을수록 적응 행동 수준이 높았다. 또한 상사의 리더십과 중간 관리자 관리 및 애정도가 높을수록 적응 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상사의 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적응관리요인에 따라 적응심리를 분석한 결과, 충동절제가 잘되고 상사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적응 심리 수준이 높았다.

이를 종합하면, 접적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장병들의 신체건강과 심리건강, 상사와의 유대관계와 조직분위기가 군 생활을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상사의 리더십과 중간 관리자 관리 및 애정도가 높을수록 적응 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군 복무생활 중에서 가장 신참일 때 긴장감으로 인해 군 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지고, 반면 군복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군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충동절제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병들의 개인적, 조직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군 적응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군 조직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유효하게 전개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도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최상의 전투력과 충성도를 유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휘관을 비롯한 중간 관리자들의 효율적인 리더십 개발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1]. I. N. Kwon, Military Counseling Psychology Overview History of Education and Science, 2011.
- [2]. J. C. Ryu, A dissertation of Master's thesis of Keimyung University, 2005.
- [3]. Compas, B. Hinden, B. R., & Gerhardt, C. A.(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4]. D. H. Eom, A dissertation of Master's thesis at